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2월호 262-266페이지에 실린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www.durano.com/moksin>)

권력의 유혹

개리 싱글레이 / 그레이스 침례교회 목사

인근 교회 목사님의 목회가 드디어 파열하고 말았다. 5년 동안 내적 붕괴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끝에 가서 폭발한 것이다. 짐 목사님은 재능 있는 설교자였으며 비전의 사람이었고 잠재력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권력의 유혹을 받기 시작했다. 통제 욕구가 리더십의 은사를 습격하였다. 짐에게 위험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경고의 표식이 없지 않았으나 짐도, 그의 교회도, 이런 표식들을 인식하지 못했다.

짐이 앵글우드 커뮤니티 교회(여기서 사용된 이름들은 가명이다)에 부임할 때 그의 이력서는 훌륭했다. 세계 최고의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 밑에서 그는 훈련을 받았었다. 정체 상태에 처해있던 교회는 짐의 리더십 아래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일부 건물을 개조하고 현대식 예배를 추가하는가 하면 교회의 명물인 연례 휴일 음악 프로그램도 확대하였다.

정력적인 목회자의 활달하고 솔직한 설교 스타일은 교회의 오래된 신자들과 초신자들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다. 짐이 첫 3년 동안 이룬 일 가운데는, 한 가지 건축 캠페인의 주도과 완성도 있었다. 짐이 회의를 개최할 때는 기획이 철저했으며 각 사람으로 하여금 집으로 떠나기 전 자기 임무를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하였다. 한때 노령화하고 약간 불협화음을 발하던 앵글우드 교회는 이제 기름 먹인 기계처럼 부드럽게 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외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앵글우드의 목사님이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경고의 표식들

앵글우드는 목회자를 믿는 교회였다. 교인들 대다수의 뇌리에 떠오르는 목회자는 단 두 사람 뿐이었다. 두 분 다 이 교회에 장기간 시무했었다. 한 분은 시무 중 사망하고 다른 한 목회자는, 대다수의 다른 목회자라면 은퇴했을 시기에 훌륭한 사역의 기회를 얻어 떠났었다. 교회는 목회자의 직분을 존중했으며 목회자에게 교회 갱신에 관해 자유 재량권을 드렸다. 아마도 이런 요소가, 짐의 초기 성공에 대한 그들의 기쁨과 맞물려, 짐의 내면적 변화 및 다른 리더들에 대한 그의 관계를 눈여겨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1. 책임성의 축소.

이런 변화는 청소년 사역자가 얽힌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교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의 제직회는 교회의 영적 권위 기관이며 목사는 궁극적으로 그들 앞에서 직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드물지만, 제직회가 짐에게 어떤 특정한 일들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때 한번은 청소년 부서에서 불평이 일어났었다. 여러 멤버들이 집사들에게 질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청소년부 교역자 스캇의 일 처리 방식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모종의 의견 충돌이 확산되고 있었다. 집사들은 스캇을 만나보기 원했으나 짐은 자기 부교역자를 제직회 앞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처리하죠." 짐이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제직회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후 짐은 제직회의 다른 제안들도 무시하기 시작했으며 때로 제직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였다. 처음에는 그러했다

2. 남에 대한 신뢰심의 저하

또 하나의 변화는 새로운 부교역자를 모시면서 발생했다. 짐의 일은 점차 분주해지고 있었다. 짐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목회 사역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표식에 불과했으나, 집사들이 도움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짐도 이에 동의하였다. 아마 집사들은 전에 자신들이 맡고 있던 일부 책무를 목사님에게서 되찾아 오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이 계획은 부목사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짐은 자신이 직접 부교역자를 물색하겠다고 제의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종류의 인물이 필요한지를 잘 알거든요." 짐이 제직들에게 말했다. 이윽고 그는 인사 위원회의 개입이나 제직회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풀타임 목회 스태프 멤버를 한 사람 데려왔다.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짐의 존재는 더욱 부각되었다. 짐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조하고 이를 리더십 팀에 알렸다. 그가 재능 있는 지도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그의 태도는 어떤 치명적인 전제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일이 똑바르게 수행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짐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을 더 많이 신뢰했을 뿐이다. 자기 사람들을 유능한 리더로 만들고 싶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그에게는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다. 일을 망치지 않도록 매사를 일일이 챙기는 것이 지혜로운 조치라고 그는 생각했으나 그 아래의 리더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3. 충성의 재규정

이윽고 교회가 세련된 이미지를 투사하며, 리더십 팀이 통일성을 이루어 일사불란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정신이 득세하자 어떤 문제로 시시콜콜 떠들어댐으로써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우려가 아마도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반론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소수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짐은 그들의 이탈이 아마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종종 그럴듯, 그들의 떠남은 질병의 치유책이라기보다 질병의 징후였다.

충성과 의견 불일치도 재규정되었다. 충성은 성경이나 교회 사명에 대한 동의(同意)가 아닌 목회자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게 되었다. 드디어 짐의 주변은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말해주고자 하는 사람들로 에워싸였다. 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불평한다"거나 "불순종한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충성스런 추종자들이 보호막을 치고 있을 때 목회에 대한 공정한 비평은 목회자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리고 목회자는 다가오는 목회의 붕괴를 예견하기 어렵다.

4. 사람들 곁에서 물러남

이것이 가장 분명한 경고 표시일 것이다. 그러나 이 표식은 보통 발전 사이클에서 후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포착했을 때는 시기가 너무 늦어 변화를 가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짐에게 있어서는 이 표식이 곧 무렵에 다가왔다.

짐은 점차 바빠지고 점차 고립되어갔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그는 홀로 일해야 했다. 그의 리더십 팀은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교역자들은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향해 기도과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부교역자들과 집사들이 각각 서로간에 팀웍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동료 의식은 교회에나 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와 의미깊은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소수의 책임 그룹들은 그의 뻑뻑한 스케줄을 버거워했다.

동료 목회자들과의 접촉도 차츰 감소했다. 앵글우드 교회에 흥미진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짐은 그런 일들에 대해 동료인 우리에게 쉽게 털어놓았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교회와 리더들에 대한 비평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었다. 지금에서야 필자는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지만 이것은 아주 명백한 경고 표식이었다. 이런 내파(內破) 이후 필자는 누군가가 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원했었다. 어쩌면 우리가 그의 사임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짐은 그의 핵심적 인간 관계들이 파괴된 후 교회를 떠났다. 현재 그는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 비즈니스가 그의 권력 습관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영양물이 될까 두렵다.

보다 현명한 조처

앵글우드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의아해하고 있다. 어느 추악한 가정주부가 그들의 목사님을 쓰러뜨렸다는 말만으로는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다. "집사들이 오래 전에 이를 막았어야 했다"고 한 교인이 말했다. 옳은 말이다. 짐은 자신이 그런 표징을 알아보았어야 했다며 울었다. 사실이다.

권력의 유혹을 받는 일부 목회자들은 거대한 텔레비전 제국을 가지고 있다. 또 혹자들은 100명 미만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권력의 유혹에 대해 면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권력 추구를 담대한 리더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향한 갈망은 후자와 동일한 일부 외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효과적인 리더십을 죽이고 만다. 권력 추구는 불신을 조장하며 스태프 멤버들로 하여금 자기 이력서를 다시 쓰게 만든다. 결국 담임목사의 권력 추구 때문에 교역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 떠난다는 뜻이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다섯 명의 지도자와 필자는 경건한 리더십으로 정평이 난 어느 탄탄한 교회의 교역자 진을 방문하였다. 그 교회에는 12명의 풀타임 교역자가 있었고 교회의 예산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다. 그들의 동의를 얻어 우리는 교역자 회의를 참관할 수 있었다. 회의 후에는 부교역자들과 만나 그들의 특정 사역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담임목사를 포함해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의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대답하며 성공담과 실패담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 교회의 자원이 넘치고 그들의 영향력이 탁월했으나 그러한 강력한 목회 사역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와 다른 성김의 리더십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다. 필자는 그 곳을 떠나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간추려 보았다.

1. 기도를 통해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

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며 교만해 지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패성을 인정하고 경성해야 한다.

2.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늘 깊이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초라한 생각에 도전하고 일상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에 관해 큰 그림을 교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얼마나 멋진가?

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서술한 예수님의 겸비(謙卑)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보여준 준엄한 그림이다. 베드로전서 5:2-3은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성기기를 열망하며, NIV),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우리의 본이 되라"고 말한다.

3. 자기 주변에 책임을 묻고 충고해줄 수 있는 자들을 두어야 한다

신학과 비전은 유사하면서 능력과 개성, 삶의 경험은 서로 다른 사람들로 팀을 만들라. 그들의 다양한 시각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

당신의 팀 멤버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에게 부탁해, 당신이 권력을 휘두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알려 달라고 하라. 당신이 목회 권력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느낄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있다. 명심하라. "의도는 한 가지라도 인식은 구구각색이다."

필자는 매년 나의 핵심 리더들 각자와 한 번씩 사적인 점심 식사 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야기는 대부분 그들이 하고 나는 듣기만 한다. 금년에도 어느 집사가 비평적이지만 유익한 제언을 주었다. 나는 즉각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변화가 느껴지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제 그 일에 관한 나는 더 좋은 목사가 되었다. 내가 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4. 리더십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라

고어 비달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내가 충고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없는 인간 문제는 없다." 아마도 권력이 것처럼 유혹적인 것은, 권력이 있을 때 남들의 다른 비전이나 성가신 간섭 없이 우리가 보다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미래에 관해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권력에 유혹을 받는다. 위임법을 배운 모세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경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에게 책무의 배턴을 넘겨야 한다.

우리가 방문했던 그 교회는 이미 차기 10년 동안에 새 담임 목사를 모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강단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교회가 예전처럼 생동감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들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담임 목사는 교체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교회에 그런 급진적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자신감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권력 자체는 악하지 않다. 힘은 비행기를 날게 하고 도시에 불빛을 밝혀 주며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준다. 하지만 그 힘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회에 강타를 날려 목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

게리 싱클레어(Gary Sinclair)/ 미국 일리노이주 그레이스 침례교회의 목사이다.